경제사범 換亂 이후 최다

〈환란〉

광주지검, 작년 3,899명 입건…2005년 대비 11% 늘어

'짝퉁' 제조·판매 사범 무려 5배 급증

경기 불황이 깊어가면서 지난해 경제 관련 범법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크게 늘어난 경제 관련 범죄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3년 이후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사범으로 입건된 숫자는 3천899명으로 2005년 3천458명에 비해 11% 증가했다.

경제사범은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직후인 1998년 4천355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1999년 3천722명, 2000년 3천431명, 2001년 3천353명, 2002년 3천309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03년 3천765명으로 급증하며 다시 증가세로 반전한 뒤 2004년에는 4천283명으로까지 급증했다. 〈표〉 이후 2005년에는 3천458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 3천899명으로 증가했다.

경제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의 성인오락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인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1천3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731명) 보다 41.3%가 늘어난 것이다.

2005년 170명이었던 유가증권 사범도 지난해 210명으로 늘어 23.5%가 증가했다.

특히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2005년 30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5배나 폭증했다. 속칭 '짝퉁' 제조·판매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 사범도 전년 371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17.5%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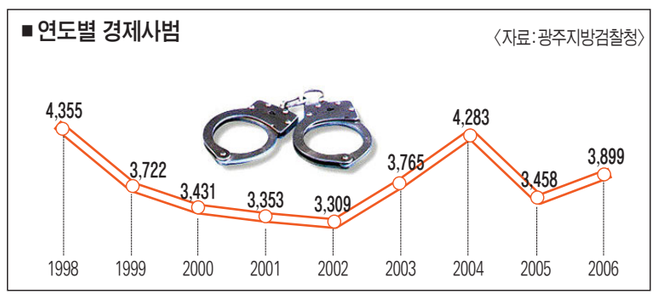
경기 침체로 인한 속칭 '카드깡'과 불법 대출 등이 확산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범도 전년에 비해 2% 증가했으며, 사기 사범도 7%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세금 포탈 등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범은 전년 392명에서 지난해 293명으로 25%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1998년을 고비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1년까지 경제사범 수가 줄어들었으나 경제·사회의 양극화 심화, 신용카드 남발 등에 따른 신용불량·개인파산 급증 등으로 경제사범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연도별 경제사범 〈자료:광주지방검찰청〉



진돗개 '흰둥이' 40일만의 귀환

집에서 새끼 낳으려 담양→광주 20㎞ 달려와

광주시 북구 동림동 김주만(75·철강 도매업)씨 집엔 14일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40일 동안 소식이 없던 일곱살배기 진돗개 '흰둥이'가 집에 돌아온 지 나흘만인 이날 새벽 새끼 한 마리를 낳은 것이다.

김씨 부부는 "새끼를 집에서 낳으려고 그 먼길을 달려온 것을 보니, 사람보다 낫다"며 흐뭇해 했다.

김씨가 흰둥이를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사돈댁에 보낸 것은 지난해 12월24일. 임신한 탓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자꾸 사람을 물려고 들어 하는 수 없었다.

7년간 정들어 손녀와 다름없는 흰둥이를 떠나 보낸 며칠 뒤, 노부부는 흰둥이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눈은 퍼붓는데, 새끼까지 가진 것이 없어졌다고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하지만 흰둥이의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결국 찾는 것은 포기하고 어디에서든 밥 안 굶기만 빌었다.

그렇게 40일이 흐른 지난 10일 아침. 새까맣게 변해버린 흰둥이가 대문 앞에 나타났다.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우는 걸 보면서 한참 울었어. 지 새끼 잘 키우려고 20㎞가 넘는 거리를 헤매다 집 찾아 온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김씨 부부는 흰둥이의 목덜미를 꼬옥 끌어안았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김주만씨 부부가 40일만에 집에 돌아와 새끼를 낳은 '흰둥이'를 끌어안고 있다.

나우찬

〈7055〉 김종두

화재현장 발견 라이터 외국인 수용자가 반입

여수 화재 참사 수사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여수경찰은 14일 최초 발화지점인 304호실에서 발견된 라이터 2개 중 1개는 이곳에서 수용 중이던 A(사망)씨가 지난 2005년 10월 단기 상용여권으로 입국해 용인 소재 건설현장과 업체를 전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305호실의 동료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수용자들의 진술을 확보, 보호실 내부로 라이터가 공공연하게 반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방화용의자 김광석씨가 술은 잘 마시지 않았으나 흡연을 즐긴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화재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소방시설 점검 용역업체가 화재경보기를 특별점검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14일 이번 참사로 인한 사상자 27명 중 양바오지아씨 등 8명의 임금 1천994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 업주에게 청산하도록 지시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설 차례상 이렇게… KT 사랑의 봉사단 단원들이 14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KT공부방'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설 차례상 차리는 법과 세배예절을 가르쳐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강종만 영광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광주지검 특수부(김종호 부장검사)는 14일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강종만(53) 영광군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16일 자신의 집에서 친척 지모(56)씨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자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가진 S업체 관계자 등 2명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끝나지 않은 '5·18 상흔'

80년 공수부대원에 맞아 머리 다친 50대

'정신분열' 상태서 어머니에 흉기 휘둘러

'5월 광주'의 상흔(傷痕)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80년 5·18 때 공수부대원에게 머리를 심하게 다친 50대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혔다.

광주시 방림동 S아파트에서 보일러 수리공으로 근무하던 한모(당시 26세)씨. 한씨는 누나의 소개로 대전에서 선을 본 뒤, 5월 20일 광주로 내려왔다가 공수부대원에게 붙잡혔다.

공수부대원들은 다짜고짜 한씨의 머리를 곤봉으로 때렸고, 머리를 심하게 다친 그는 정신을 잃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자전거로 싣고 집으로 옮겼지만, 한씨는 이때부터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돈이 없어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다 이듬해야 병원을 찾았고, 정신분열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한씨는 10여 년 전 부모를 따라 서울 신림동으로 이사했다. 상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노부모가 그를 돌봐야만 했다.

지난 13일 밤 11시, 한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박모(73)씨의 얼굴과 머리 등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서울 관악경찰에 연행된 한씨는 횡설수설했다. 가족들은 한씨의 서러운 삶을 담당 경찰에 털어놓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도 한씨가 1급 국가유공자이며 딱한 처지를 감안, 14일 불구속 입건 후 집에 돌려보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인터넷서 담배 4억여원어치 판매

쌍나팔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14일 인터넷으로 수억원어치의 담배를 판매한 허모(29)씨 등 6명을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2005년 11월 인터넷에 담배 판매사이트 7개를 개설, 회원 3만여 명을 모집한 뒤, 1만4천여 회에 걸쳐 4억5천여만원 상당의 외국산 담배와 국산 담배를 판매했다는 것.

○…이들은 네티즌들이 담배를 주문한 뒤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면 필리핀 현지 거주자에게 담배를 구입, 국제항공우편으로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피의자 중 홍모(여·49)씨는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범행에 가담했다고.

○…홍씨 등은 담배 1보루를 국제항공우편으로 외국에서 발송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보다 싼값에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